#2  
마음이 변하는 과정

비가 많이오던 2023년 6월 26일 여름날 우리는 처음 만났었다.

모델이 메이크업 할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 늦게 오셔도 된다고 하셨지만, 모델과 헤메까지 구인해 촬영한 첫 작업이라 모두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늦은 채 올림픽 공원 후문 카페로 갔다.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카페가 정문에도 하나 있었는데, 알고보니 약속 장소는 정문이었고 비를 맞으며 공유 킥보드를 타고 얼른 이동했다.

첫 촬영이니 만큼 나는 무척 긴장을 하고 있었다.

홀딱 젖은 몰골로 처음 만난 너는, 나는 생전 처음보는 온갖 종류의 화장품과 브러쉬가 담긴 커다란 장비 상자를 펼쳐놓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멋있었다. 그제야 내가 일을 크게 벌렸구나 생각이 들었다.  
화장품을 넣어다니는 그런 상자가 있는줄도 몰랐고 생각보다 엄청 무거웠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탓인지, 나는 무척 위축되어 있었고 소심했지.  
그때 만났던 너는 나에게 어려웠다. 무척 조심스러웠고.

우중 촬영을 하면서 좋지 않은 노면 상태에 캐리어를 낑낑대며 끌고가는 너를 무작정 도와주고 싶었다.

나나 너나 모델이나 쫄닥 젖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나는 너에게 미안했었다.  
편하게 실내촬영만 하다가 갑자기 스냅을 처음 찍었댔지. 그런데 그렇게 처음 작업한 스냅이 우중촬영이라 쫄닥 젖었으니, 다음에 작업할때 너를 부르면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다.

^()

그렇게 첫번째 사진작업을 마쳤다.

두번째 만남은 2주가 넘게 지난 7월 15일이었다.  
  
프로필 촬영을 도전해보고 싶었던 나는, 모델을 물색하던 중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찍어보지 않겠냐며 건낸 제안을 덥썩 무는것에서 시작했다.

계획이 잡히고 스튜디오로 이동하던 중에 너와 내가 같은 열차에 탔다는걸 알았다.  
양평역에서 내리자 보였다.

검은색 셔츠를 입은, 보라색 캐리어를 끌고가고 있는 너가.

무겁다는 걸 이미 올림픽공원에서 알게 되었었고 힘들어 보여서 내가 들었다.

내가 인사도 안하고 무작정 캐리어부터 들었던 것 같네.

많이 무거워 보였던 것 같다.

다시 본 너의 본업 모먼트는 역시 멋있었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각종 화장품들과 브러쉬들.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언제봐도 멋있다.

모델이 착장을 여러벌 준비했는데,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갔을때 나는 얼른 너 손에 브러쉬를 쥐어주고 조명 앞에 앉혔다. 어색함에 활짝 웃고있는 너 사진은 지금 봐도 너무 예쁘고 귀엽다.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건넨 한마디.

“너무 귀엽다 완전 지수씨 취향 아냐?”

난 그때까지는 잘 몰랐다. 아니 어쩌면 이날부터 너가 조금씩 다르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찍은 너의 사진을 보정하며 깨진 이빨을 펴면서도, 보정한 파일을 따로 폴더에 넣어 너에게 보내면서도 조금 더 애정을 쏟았던 걸 보면 그때부터 너는 나에게 그냥 “헤메님” 은 아니었나보다.

세번째 만남은 배우를 준비하는 내 친구가 오디션에 사용할 사진을 나한테 부탁하면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만난지 한달이 넘게 지난, 첫번째 촬영때의 모델과 싸우고 난 뒤

또 다시 너가 조심스러워진 나는 용기내서 촬영 두개를 함께 작업하자며 연락을 했다.

친구가 한시간이나 늦게 도착했고 덕분에 단둘이 있을 시간 한시간을 벌었다.

늘 가던 카페에서 나는 어김없이 컵빙수를 주문했었다.

내가 핸드폰을 자꾸 보는 바람에 너가 못마땅 했댔지. 그치만 그렇게 해주는게 너한테 편할것 같았다.

그날 너는 또 기깔나게 메이크업을 해주었지만 내가 촬영한 원본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조용히 혼자 기죽어서 너한테 미안했다.

짐 바리바리 싸들고 와줬는데 혹여나 촬영본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고.

그날따라 참 정신없고 내릴 역도 지나쳤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또 다시 내릴역을 지나쳤다.

그 이야기를 너한테 했더니 돌아온 너의 대답은

“오늘 정신 똑디 차리라 그랬죠” 였는데,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었다.

항상 너무 딱딱하게 일 이야기만 주고받았어서 조금 그랬는데.

ㅎ.ㅎ 옅은 미소 짓게 하는 말이었다.

네번째 만남